

<환 영> 선교가운데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선교주간되길 소망합니다.

<찬 양> 찬송가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설교요약> 롬 12:6-13

1. 은사란 계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에 대한 분쟁으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은사 받은 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혼란이 많았다. 이 은사로 시대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어느 시대 든 사람들의 삶 팍팍하기에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 말에 빠졌다. 성도들간의 계층이 발생하였고, 은사가 계급이 되어버렸다. 이것으로 인해 분열이 초래되었다. 신앙의 계급화가 일어났다. 은사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당을 쓸게 한 빗자루와 같다. 빗자루로 청소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것을 다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1)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2)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내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며 열등(우월)의식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의 지체됨을 위하여 주셨다.

예언의 은사(6절)가 나온다.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많다. “기도해보니,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무당이다. 성경에서는 단 한군데도 이런 구절 나오지 않는다. 예언의 은사 다음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나온다. 그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황과 수준에 맞게’ 라는 말이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 상황에 맞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나온다. 똑같은 상황과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라고 나오는데,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 가르치는 자는 어느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교회로 우리가 묶어진 이유, 선교만큼이나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말씀에 착념해야 한다. 교회로 묶어진 이유, 가르치는 사명에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로서의 본질이다.

8절에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라고 나온다. 하찮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일수 있다. 이 사람들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준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란 말중 성실하다는 말의 원뜻은 순수함으로 하라는 말이다. 계산없이 하라는 말이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이라 나오는데 부지런은 무엇인가? 균형있는 열정이 있다. 열정을 드러낼 때와 열정을 감출 때 균형을 가져야 한다. ‘궁핍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말이다.

3)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가 있습니다. 혹시 개인의 힘든 상황속에서 잘못된 예언을 추구한적은 있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4) 성경은 만인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성도는 교회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 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마음을 갖으면 서로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서로에 대한 지체됨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면, ‘사랑’을 연습하라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은사의 궁극적 본질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로 마무리 되며 그 다음에 사랑장(13장)이 나온다. 14장에서는 다시 은사가 나온다. 은사와 은사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다. 각 기 다른 은사 주신 이유, ‘사랑’을 통하여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약한가? 그것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교회내 뿐 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

5) 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무엇이라고 은사의 본질을 이야기 합니까?

6) 서로에게 선물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다짐을 나눠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새해의 계획과 기도제목등을 바라보며 개인과 가정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2. 교회: 선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경의 진리대로 증거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3. 나라: 사회와 경제, 정치가 다시한번 주님의 뜻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